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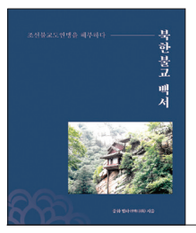
11/11~11/17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 : 선지식의 크신 사랑	김원수	바른법연구원	6	한권으로 일목 요연하게 보는 불교의 이해	도후스님	운주사
2	제로 : 현실을 창조하는 마음 상태	천시아	젠북	7	네가지 마음 챙기는 공부 (대념처경과 그 주석서)	각묵스님	초기불전연구원
3	낡은 옷을 벗어라 : 법정스님 미출간 원고 68편 수록	법정스님	불교신문사	8	한권으로 읽는 빠알리 경전	일아스님	민족사
4	요가디피카 (아헹가요가) 육체의 한계를 넘어	아헹가/현천스님	선요가	9	적명을 말하다 (선사들이 들려주는 수좌 적명의 삶)	유철주	사유수
5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 이야기	과경스님/정원규	불광출판사	10	지금 이대로 좋다	법륜스님	정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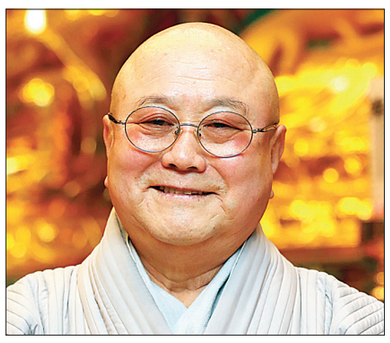
책세상

해방전후 북한 불교 총망라



북한불교백서
—조선불교도연맹을 해부하다

중화 법타 지음 / 조계종출판사 펴냄 / 1만8천원



북한불교 핵심 '조선불교도연맹'
북한불교 유일 종단 · 종무기관
조불련, 역사 · 생성 · 현재정리
북한의 체제와 종교 공존 유도
평화통일 위한 우리 필수 과제"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북한불교의 핵심인 '조선불교도연맹(이하 조불련)'의 역사적 뿌리와 생성 과정 및 현재 상황을 종합 · 정리한 책이 나왔다.

책은 한반도의 통일이 국가와 민족 번영의 '키워드'라는 전제에서 오늘날 북한불교의 존재, 불교신도들의 역할 등을 재조명한다. 또한 해방 전후부터의 북한의 종교 역사와 정책, 종교 단체의 현황을 짚어보고 북한 주민들이 체감하는 종교 현실 등에 대해 살피고 있다.

책은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됐다. 제1장 '서론'에서 연구의 목적을 밝히고, 제2장에서 북한의 종교관과 종교 정책에 대해 조명한다. 제3장에서는 조불련이 있기까지의 역사를 짚고, 제4장에서는 조불련의 역사와 조직을 살핀다. 제5장에서는 남북 불교 교류와 협력, 북한불교의 지속 가능성을 진단한다. 제6장 '결론'에서는 본 연구의 의미와 활용 방안에 대해 밝히고 있다.

북한의 불교를 들여다보아야 하는 이유, '조불련'을 들여다보아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원만하고 발전적인 한반도 통일에 필요한 여러 가지 노력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책은 북한에서 불교의 유일한 종단이자 종무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조불련'을 이해하는 것이 곧 북한불교를 이해하는 일이라고 말한다. 70개도 안 되는 사찰을 보유한 북한의 불교를 남한의 불교와 비교해 볼 때, 외형이나 사회적 영향력은 왜소하고 사회적 기능도 단순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조불련'이 우리가 상대하고 교류하고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는 것이다. 책은 이러한 의미에서 '조불련'의 존재가치는 소중하고, 조불련에 대한 심층 연구와 분석이 남한불교계의 숙제라고 말한다.

해방 전후, 진보적 · 사회주의적 승려들은 1948년 김구, 김규식 박사 일행을 따라 김일성이 제창한 '전조선 제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에 참여했다. 그중 일부 승려는 북한에 잔류하여 '북조선불교도연맹' 결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 오늘의 북한 '조불련'의 원조가 됐다. 저자 법타 스님<사진>은 "'조불련 중앙위원회'는 북한 전체를 관장하며 종교단체이자 사회단체로서 통일운동의 역할을 맡고 있다. 북한불교를 이해하는 데 조불련의 조직과 역할을 재조명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앞으로 남북한의 종교 교류를 정상화하고, 북한 종교에 대한 연구들을 풍부하게 만들며, 향후 이 같은 연구들로 사회주의 체제와 종교가 공존할 수 있음을 밝히는 것, 또한 이를 북한에 제공하여 종교 활동이 자유롭게 자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우리가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실현해야 할 과제"라고 말한다.

1972년 '7 · 4 남북 공동 성명'이 발표되고 남 · 북한 상호 방문이 시작됐다. 2000년 6월, 남북 분단 55년 만에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면서 '6 · 15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됐다. 이후 남북 교류 · 협력은 종교 뿐 아니라 다방면에서 활발해졌다. 남북한 종교계는 각 종교마다 이에 대비하고 기여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을 쏟아냈다. 남한 정부의 통일을 위한 노력과 북한 당국 차원에서의 종교 정책 변화에 따른 긍정적인 변화가 이어졌다. 그 당시, 남북한 불교 교류의 역사적 현장에 자리했던 산증인이 저자 법타 스님이다.

법타 스님은 1965년 법주사에서 추담 대종사를 은사로 득도했다. 동국대 인도철학과에서 학사와 석사, 1996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시 클레이턴 대학교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후, 2020년 2월 동국대 대학원 북한학과에서 승려 최초 북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조계종 총무부장, 은해사 주지(3임), 동국대 정각원장을 각각 역임하고, 2017년부터 조계종 원로회의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18년 대종사 법계를 품수했다. 현재 은해사 회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위원, (사)평화통일불교협회 이사장 등을 맡고 있다. 〈북한불교 연구〉, 〈북한의 절과 불교〉 외 다수의 저서와 논문이 있다.

신륵사는 왜 신륵사로 불릴까?



한국불교전설99

최정희 엮음 / 우리출판사 펴냄 / 1만6천원



'내 고장 불교 전설' 연재 99편 묶어
1986년 초판 발행 최초 연기설화집
34년 동안 10쇄, 개정판 1쇄 재출간
삼국유사, 신문 · 경전 등서 발췌해
〈문화원형백과〉 '불교설화편' 실려

찬즙대사와 동자, 수덕사의 버선꽃, 자장율사와 금개구리, … . 1986년, 불교전설 99편을 묶은 책이 출간됐다. 〈한국불교전설 99〉이다. 책에 실린 99편의 전설은 1984년 1월부터 1986년 3월까지 불교신문의 '내 고장 불교전설'에 연재됐던 것들이며, 그것들을 묶은 책은 최초의 연기설화집이다.

당시 출판계와 언론으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았던 책은 2003년까지 10쇄를 찍으며 조용히 스테디셀러가 됐다. 그리고 2020년, 책은 표지를 바꾸고 활자를 고쳐 다시 인쇄기에 걸렸다. 개정판 1쇄(11쇄)다. 저자 자신도 한 동안 잊고 살았던 책이 다시 세상에 나온 것이다. 이번 개정판을 계기로 무려 34년 동안 인쇄를 이어가고 있는 책은 이제 책 자체가 살아있는 전설이 되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개정판에는 이야기마다 관련 자료사진과 주소를 첨부해 답사를 원하는 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시대가 아니었던 연재시절 당시 저자 최정희 작가(당시 불교신문 기자, 필명 애란자)는 일반 설화집과 삼국유사를 비롯한 사료, 각종 매체, 지역 자료, 경전 등에 흩어져 전해오는 불교 관련 설화들을 일일이 발로 뛰며 수집했다. 그렇게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한 편 한 편 전설이 정리되고 완성됐다.

"아마 요즘 무학이 새 도읍지를 찾아 다니는 모양인데, 좋은 곳 다 놔두고 엉뚱한 곳만 찾아다니니 어찌 미련하고 한심한 일이 아니겠소."

이성계의 청을 받아 새 도읍지를 찾아 나선 무학대사, 그 과정에서 생겨난 이름 '설울'은 오늘날의 서울, 무학대사가 10리를 더 걸어간 곳 왕십리, 신륵사가 신륵사인 이유, 나옹 스님의 효심과 영월암 마애지장보살 …. 우리 땅에 붙여진 이름들 속에는 우리가 살아온 모습과 지나온 시간들이 있고, 하나의 절이 지어지기까지는 많은 꿈과 인연들이 있었다. 그렇게 책 속의 전설들은 우리가 모르는 우리의 이야기, 우리가 알아야 할 이야기들을 들려준다. 또한 그 이야기들 속에는 많은 법문이 대화 곳곳에 숨은 그림처럼 그려져 있다. 짧은 전설 한 편에는 우리의 역사와 불교 등 우리의 정체성이 들어있다.

그렇게 우리문화 속에 지명 · 창건연기설화가 많이 존재하는 것은 우리문화의 전반이 불교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불국토를 염원한 우리의 조상들은 삶의 둥지인 이 땅에 불법이 두루하길 기원했기 때문일 것이다. 때문에 그들은 팔도강산 처처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지명을 붙이고 그 명칭의 유래를 연기설화(緣起說話)형식으로 구전해 왔다.

저자 최정희<사진>는 지명이나 사찰의 명칭을 설명하는 설화가 단순히 명칭의 유래만을 밝히는 데 그 목적이 있지 않다고 말한다.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다시 아들에게 전해온 이 땅의 불교전설은 흥미로운 이야기 속에 인과응보, 업보윤회, 보시공덕, 구법, 보살의 자비행, 효선의 의미를 담아 선(善)하고 지혜로운 삶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며, 때문에 불교전설은 어느 고승의 법문보다도 설득력이 강한 민중교화의 법문으로 전승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뜻에서 책에 실린 99편의 전설은 불교가 이 땅에서 어떻게 존재해 왔고 전개되었는가를 엿보게 하는 한편 역사적 · 문화적 자료로도 음미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그러한 가치들은 교육적이고 교화적인 가치와 창작물의 모티프로도 확장되는 등 문화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중한 콘텐츠라고 할 수 있다. 책에 실린 전설들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창작소재의 보고로 선정되어 〈문화원형백과〉 '불교설화' 편에 실렸다.

저자 최정희는 불교신문 공채기자로 20년 간 근무했으며, 현대불교신문 초대 편집국장과 편집이사로 일했다. BBS불교방송 '자비의 전화' '피안을 향하여', 생방송 '지금은 불교시대'에 이어 9년 간 'BBS초대석을 진행했다. 문화관광부장관 표창, 포교대상 원력상, 불교언론인상을 받았다. 지은 책으로 〈잘사는 법 99〉, 비구니 원로 광우 스님 출가 70년 대담 〈부처님 법대로 살아라〉 등이 있다.

박재완 기자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붓다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을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을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4. 맛지마니까야 :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무른다.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10-5282-7292 (젠에너지 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젠에너지 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과학적인 증거

(ㄱ) 호흡의 물리가 터지다 = 제6차크라 젠에너지체
(ㄴ)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은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 처명선광 검색
(ㄷ) 구글에서 신희섭(기초과학연구원단장, IBS, 뇌과학자) 구글이미지로 제6차크라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 가능

*붓다의 호흡법 : 방법을 알고 최소 1일 10시간씩 3년이상 수련 필요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유튜브에서 '처명선광' 검색

듣기만해도 치료가 되는 실전 명상

제 104기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중급과정 (6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다루는 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구병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함

◈ **모집인원** : 30명(선착순)

◈ **강의일시** : 매주 화요일, 금요일 오후 5시 ~ 6시 30분(90분) 담임교수 원장직강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번길 45(낙원동 243-3) 탑공공원 뒷편 ☎ (02)741-0495~6